

국내 기업의 아세안 건설 시장 진출 방안: PPP 사업을 중심으로

KICEM



장현승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jang@seoultech.ac.kr

1.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건설 시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글로벌 인프라 누적 투자 수요(2016~2040년)는 93조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동 기간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50조 7,697억 달러로 약 54%의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 공급 금액은 4조 2,045억 달러로 4조 5,652억 달러의 인프라 펀딩 갭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Global Infrastructure Hub, 2018).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를 반영한 인프라 투자 수요(2016~2020년)를 연간 5,030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15년 1,950억 달러 대비 3,080억 달러의 투자액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평균 인프라 투자액 5,030억 달러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공공부문 1,330억 달러(26%), 민간부문 630억 달러(13%)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수요의 절반을 상회하는 연간 3,070억 달러(연간 수요의 61%)의 투자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찬수 외 4인, 2017).

글로벌 기관들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투자 수요 대비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지역 주요 개도국은 자국의 인프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기후변화를 반영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수요 전망 (2016~2020년)

단위: 억 달러(2015년 불변가격 기준)

구분	2015년 투자액(A)		2016~2020년 연평균 필요투자액(B)		필요증가액(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계(25개국)	8,810	100.0%	13,400	100.0%	4,590
중국	6,860	77.9%	8,370	62.5%	1,510
중국 제외(24개국)	1,950	22.1%	5,030	37.5%	3,080
남아시아(8개국)	1,340	15.2%	3,290	24.6%	1,950
동남아시아(7개국)	550	6.2%	1,570	11.7%	1,020
중앙아시아(3개국)	60	0.7%	120	0.9%	60
태평양(5개국)	10	0.1%	20	0.1%	10
동아시아(1개국)	-	-	30	0.2%	30

주: 동아시아 대상 국가 2개국(중국, 몽골)중 중국 수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주2: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남아시아에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7), AIB와 아시아·CIS 인프라개발

본 고에서는 향후 높은 경제 성장과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인프라 개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아세안회원국의 민관협력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진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현황 및 전망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아세안 PPP 시장 현황 및 특징

아세안회원국의 PPP사업 현황 조사를 위해 세계은행 산하의 민관 인프라 자문기금(PPIAF: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에서 제공하는 아세안 8개 회원국(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2개국 제외)의 관련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지난 28년간(1990~2017년) 아세안회원국에서는 총 683건의 PPP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3개의 이상치 데이터를 제외한 680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인프라 분야별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가 456건(67.1%)으로 가장 많은 투자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교통 분야: 138건(20.3%), 수자원 및 위생 분야: 65건(9.6%), ICT 분야: 21건(3.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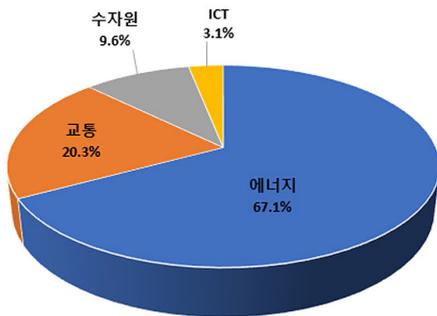


그림 1. 아세안 지역 인프라 분야별 PPP 실적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에너지 분야의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동 지역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세안회원국의 경우 자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하여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 수행 여건 평가 시 '전력 공급의 열악함' 부분의 경우 개선 속도가 더디 향후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전망된다.

신규사업(Green Field)과 재개발사업(Brown Field)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규사업: 552건(81.2%), 재개발 사업: 128건(18.8%)'으로 신규사업 비중이 훨씬 높으나 인프라 분야별로 구분할 경우 "교통 분야, 수자원 및 위생시설"은 재개발사업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아세안회원국들은 자국 인프라 개발을 위해 다수의 PPP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련 사업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리핀은 PPP 방식을 활용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베트남 또한 부족한 정부재원으로 인하여 국영 기업 주도의 인프라 개발보다는 PPP와 같은 민간 주도의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규연, 2018).

3. 아세안 PPP 시장 추정 및 전망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금액 중 아세안회원국 비중은 2014년 16.4%에서 2016년 31.2%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2017년 해외건설 수주 실적(290억 달러) 중 동 지역 국가들의 수주 금액은 약 62억 9,921만 달러로 21.7%의 비중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8).

아세안회원국의 인프라 투자 수요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열악한 정부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PPP 방식을 활용한 사업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회원국(총 10개 국가 중 7개 국가)의 인프라 시설 분야별 누적 투자 부족 금액 전망(2016~2040년)은 다음과 같다.

표 2. 아세안 회원국의 인프라 분야별 부족 금액 전망 (2016~2040년)

단위: 십억 달러

구분	에너지	통신	교통				수자원	합 계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캄보디아	7.4	7.2	0.38	0.91	1.5	11	-	28.39
인도네시아	-	2.9	2.0	-	-	-	65	69.9
말레이시아	-	-	-	6.2	-	70	-	76.2
미얀마	0.83	8.5	-	3.0	2.5	69	28	111.83
필리핀	-	-	1.4	0.26	2.6	31	33	68.26
태국	-	4.7	-	11	6.1	79	-	100.8
베트남	8.9	-	1.3	8.1	5.8	55	23	102.1
합 계	8.23	23.3	3.78	21.37	12.7	260	126	455.38

주: 브루나이, 라오스 등은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싱가포르는 제외함.

자료: 글로벌인프라허브(2018), 국가별 자료

국가별 인프라 투자 부족 금액은 미얀마가 1,118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1,021억 달러, 태국 1,008억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3개국은 전체 부족 금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증액되지 않거나, 정부 재정을 기반으로 한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대부분 민관협력사업(PPP) 방식 형태로 인프라 개발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 투자 분야별 부족 금액을 살펴보면 도로 분야가 2,600억 달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수자원 1,260억 달러, 통신 233억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수

요가 높은 요인으로는 아세안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 간 연계성 사업과 자국의 열악한 물류인프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인프라 투자 수요 대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아세안 지역 개도국의 여건을 고려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PPP사업과 관련된 역량의 우선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진출 전략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진출제언 및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공적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PPP) 등을 지원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해외 PPP사업 진출 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아세안회원국에 대한 PPP사업 진출 시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건설기업은 글로벌 수준의 시공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영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역량은 경쟁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분의 역량 보안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 건설/인프라 관련 공기업들과의 동반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전력 및 발전 관련 공기업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소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공기업은 아세안지역 국가에서 다수의 발전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공기업과 동반 진출 시 운영 및 유지 보수 관련 역량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이들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신인도와 신용도를 활용하여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지역 국가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통해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기업 대비 무형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도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 시기 동안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한 인프라 시설 경험과 지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기업과의 동반 진출 방안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종합상사와 동반진출 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종합상사들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지네트워크와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인프라 분야에서 프로젝트오거나이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상사와 동반진출 시 기자재 조달, 금융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차원의 PPP사업 관련 역량 확보 및 향상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효과적인 PPP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현지 네트워크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장기적 관점의 투자와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끝으로, 국내 기업의 PPP사업 관련 역량은 글로벌 건설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내 S기업은 터키에서 PPP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민간발전사업(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s)형태의 사업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G기업의 경우 수자원 부문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국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아세안 PPP 시장에 대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 기회 요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참고자료

- 김규연 (2018). 아세안 인프라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 월간 KDB 국제금융,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 김찬수 외 4인 (2017). AIB와 아시아·CIS 인프라개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8). [<http://www.icak.or.kr/>]
- Global Infrastructure Hub (2018). [<https://outlook.gihub.org/>]
- Public-Private Infrastructure Advisory Facility(2018). [<http://www.ppiaf.org/>]